



**진안군 지체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개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진안군지회(회장 손운자) 하계수련회가 15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회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지체장애인들에게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손운자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오랜만에 만난 회원분들과 공연도 즐기시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이번 하계수련회가 우리 지역 지체장애인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고 지회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여러분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와 사회참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지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 약자를 위한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교원동행정복지센터, 건강·미용봉사 실시**

김제시 교원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퀴즈해어클럽(원장 선우애자)은 14일 교원동 동무마을의 경로당을 찾아 건강상담과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미용봉사는 마을복지추진단의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수사업으로 사랑의 미용서비스 '인생미정원'으로의 초대'라는 슬로건으로 15가구에 커트 및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퀴즈해어클럽 원장과 직원이 어르신들의 머리를 만지고 다듬는 동안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협안을 체크하고 당뇨 체크를 하며 간호직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본인 스스로의 건강 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컷트를 마친 어르신은 "머스도 없고 자가용도 없어 미용실에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나가야 하는데 직접 와서 머리를 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주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너무 예뻐지고 젊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며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선우애자 퀴즈해어클럽원장은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께 봉사를 하니 너무 뜻깊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원동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도 미용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선우애자 원장님과 서비스 대상자분들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생활개선연합회, 탄소줄이기 실천교육**

진안군은 오는 21일까지 10일간 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회장 강숙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과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1년도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이 각 읍면별 강사가 되어 회원들에게 탄소중립 실천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천연산품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숙희 회장은 "천연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만들기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생활개선회는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청정진안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 줄이기, 친환경용품 사용하기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추진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NH해피하우스' 봉사**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NH해피하우스 제6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병철 단장 송혁 전주완주시군지부장 강신화 삼례농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농협 노동조합 간부직원 15여 명이 함께 참여해 장마철 대비 농가 도배 및 장판 교체 작업 등 주거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인 'NH해피하우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김윤상 기자



박병철 단장은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업·농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동물병원 3명의 수의사, 임상수의학회 '우수학술상'**

전북대학교 동물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3명의 수의사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상자는 정승훈 수의외과, 지도교수 허수영, 임혜린의 래스동물과, 지도교수 한재익, 지예원(수의영상의학과, 지도교수 윤우영) 수의사다. 정승훈 수의사는 정형외과 질환이 있는 강아지에서 압력센서를 통해 체중부하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각 다리에 부하되는 압력의 변화를 평가한 연구로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향후 환자의 회복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혜린 수의사는 야생 조류에서 조류의 대표적인 급성기 단백질 중 하나인 혈청 아밀로이드 A(SAA)를 측정하여 염증성 질환의 진단 마커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해 야생 조류의 염증성 질환을 민감하게 검출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예원 수의사는 CT 이미지에서 덩어리를 이용해 자동으로 신장을 인식하고 그 부피를 측정해주는 모델을 개발했다. CT 이미지를 이용해 수동으로 측정할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자동으로 신장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 추후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인 진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로 신장을 인식하고 그 부피를 측정해주는 모델을 개발했다. CT 이미지를 이용해 수동으로 측정할 것 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자동으로 신장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 추후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인 진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최근 임신·여성취업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마을이장 및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성평등 활동을 펼치는 도내 단체가 지역 실정과 주민에 맞게 교육 워크숍 등의 성평등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농촌 지역 마을 이장을 비롯한 지역리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성인지 함양 및 성평등 활동으로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차별없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의의가 크다. 이에 농촌 지역 성평등·여성주의 교육에서의 성인자적 관점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센터는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를 기획했다. 임신 지역 마을 이장 및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양성평등의식 함양 △지역사회와 성평등의 주제로 3일 간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이어 8~9월에는 부인여성취업지원센터와 함께 부인군 농촌 마을 리더 대상, 성인지 함양 워크숍 및 성평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이번에 실시한 젠더스쿨이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나지라이온스·그린나래협, 삼계탕 100팩 기부**

도나지라이온스클럽(회장 김윤태)과 그린나래협회(회장 강도영)는 초복을 맞아 지난 15일 풍남동주민센터(동장 박상현)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삼계탕 100팩을 기부했다. 이날 삼계탕을 전달받은 김OO 노인(67세)은 무더위와 최근 폭풍하는 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전달받은 삼계탕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도영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알차게 준비한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히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현 동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뜰히 보살펴 준 따뜻한 마음이 감사드리며, 기부한 삼계탕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금암동(동장 최덕운) 새마을부녀회(부회장 김정자)와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15일 금암동 부노회경로당을 찾아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각종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300인분을 준비했다. 새마을부녀회 김정자 부회장은 "금암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작지만 알찬 삼계탕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웃음을 지키는 봉사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남원축협, 지역·이웃사랑 축산물 나눔**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김사중),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15일 남원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사랑·이웃사랑 나눔축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 임직원들은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지관에 쌀, 삼계탕, 수박 등을 전달하고, 최근 쌀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쌀 소비촉진 운동도 병행해서 진행했다. 강병무 조합장은 "초복을 맞아 코로나19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물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집중호우·폭염 대비 양묘시설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따른 육묘관리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양묘사업소(보성, 남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 이행 점검에 나섰다.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묘목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온실 내 차광 및 환풍시설을 설치해 통풍이 잘되도록 해야 하고, 야외생육시설은 지면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을 위해 배수와 통풍이 잘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묘목을 배치하여야 한다. 서부청 양묘사업소는 약 2만2천평 규모로, 매년 평균 3,300천본의 묘목을 생산해 전북, 전남, 경남 등 관내 국유림 조립사업에 공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성덕면, 초복 맞아 경로당에 수박 전달**

김제시 성덕면(면장 임양근)은 초복을 맞아 지역 내 26곳의 경로당을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부를 확인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은 수박을 맛있게 드시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합류했던 어로사랑 및 건의사랑을 말씀하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다가 재개되어 반가운데 초복이라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임양근 성덕면장은 "더운 여름 더위를 잘 견디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힘을 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것"을 당부드렸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울 남원장학숙, 입사생 추가 모집**

남원시가 오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서울소재 남원장학숙 입사생 2명을 추가모집한다. 합격자는 27일 발표하며, 지역은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대상 대학(교)?대학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부·모·학생 중 1명 이상 선별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초·중·고교를 남원시 관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입학지원이 가능하다. 추가 입사생은 성적과 가정행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순위는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순위는 관내 초·중 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특례가점 3점을 부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